

지역 소식통

금산면, 노인일자리 활동교육

김제시 금산면(면장 이승곤)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시작에 따라 활동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 교육은 노인 일자리 대상자 63명이 참석해 노인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준수 사항, 겨울철 일자리 사업 활동 시 필요한 활동 안전 수칙을 안내받고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교육했다.

이승곤 금산면장은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지향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이다.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행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기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2024년도 일자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신평동, 2024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김제시 신평동(동장 국형호)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관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참여자들의 결의를 다졌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소개와 동절기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또 교육 후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준비한 포켓용 화팩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전달하며 동절기 안전수칙에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노인일자리 활동 시작 전 진행방식과 참여자들 간에 서로 얼굴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동절기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1일 군수제' 올해도 지속

5개 분야별 선정... 분기별 운영 계획

완주군이 올해도 '1일 군수제'를 추진한다.

완주군은 올해 분야별 1일 군수를 선정은 마쳤으며, 분기별로 1명씩 '1일 군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이종준 완주군체육회장, 일자리·산업·경제 분야 임만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보건·복지 분야 이종하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장, 교육·여성·

아동 분야의 김남희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농업·임업·축산 분야의 (사)백합생산지 중앙연합회장 등 5명이다.

1일 군수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군 홈페이지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배너, 이장회의 등을 통해 '완주군 1일 군수제'를 홍보하고, 접수된 후보자 중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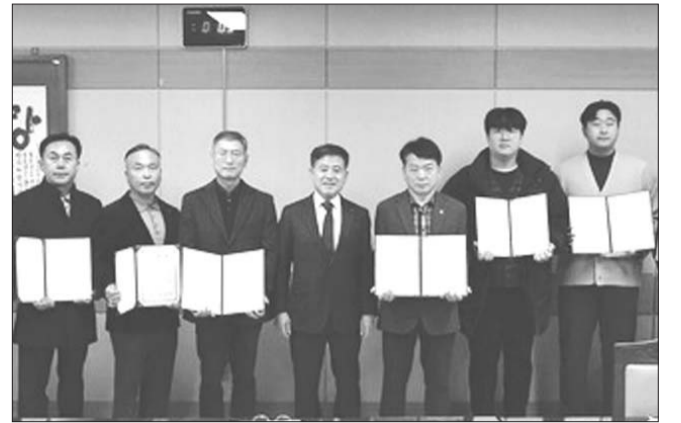
앞서 완주군은 지난 2022년 김용현(주정석케미칼 대표를 시작으로 2023년

11월 임필환 완주군산림조합장을 끝으로 1일 군수제를 운영했다.

이 제도는 군민 누구나 1일 군수가 돼 군수 시점에서 각종 현안을 살피고 민원을 처리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사회 각계각층의 군민을 1일 군수로 위촉해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주민 우선·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는 지역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9명을 공수의사로 위촉하고 19개 읍면동에 지역별로 배치했다.

김제시, 2024년도 공수의사 위촉

수의사 9명 19개 읍면동에 배치... 가축 질병 검진 등 수행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가축 방역사업의 선제적 예방 활동에 나선다.

김제시는 9일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예방과 가축 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9명을 공수의사로 위촉하고 19개 읍면동에 지역별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공수의사는 1년간 농장별 맞춤 예방 업무, 브루셀라병 및 결핵 등 가축 질병 검진사업,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지역 가축방역관으로 축산업에 큰 위협이 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렙티스킨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위해 농가별 현장 방역지도 및 예방 활동 등 가축 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최근 렙티스킨 등 신종 가축전염병과 고병원성 AI, 야생 멧돼지 ASF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우리 지역 공수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순회 예방 활동을 통해 축산 농가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숨은골 탁주', 참발효어워즈 대상

국내 유일 발효식품 전문 품평회... 완주쌀 주재료 사용

완주군 농업회사법인(주) 공동체공간 수작(대표 이진영)의 '숨은골 탁주'가 참발효어워즈 2024 막걸리(탁주)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참발효어워즈는 국내산 원료를 가지고 국내에서 생산한 발효식품 중에서 맛과 ESG 가치가 뛰어난 제품을 선별하는 국내 유일 발효식품 전문 품평회다.

슬로푸드문화원에서 주최하고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후원하고 있다.

'숨은골 탁주'는 농업회사법인(주) 공동체공간 수작 김유녀 이사(2018년 대한민국명주대상 대상 수상)가 1년에 걸쳐 고문헌을 참고해 지역농산물을 활용,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낸 술이다.

완주군 동상면의 참쌀과 누룩, 물로만 빚어 1번 발효한 단양주로 부드러운 단맛과 상큼함이 특징이다. 특히, 마시는 잔마다 맛과 향이 달라져 마시

는 재미가 느껴진다.

이진영 수작 대표는 "문헌 속에 있는 전통주를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지속적으로 재해석해서 상품화할 예정이다"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나무 술인 저염주 시제품을 만드는 등 MZ세대부터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하고 좋은 우리 술이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 하나"며 "숨은골 탁주는 지역의 전통과 음식의 역사를 술로 풀어낸 훌륭한 자산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주) 공동체공간 수작에서는 숨은골 탁주 외에도 부드럽게 익은 '숨은골 약주'와 단지향을



2024 막걸리(탁주)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숨은골 탁주' (사진=완주군청 제공)

담은 '숨은골 빨강소주'도 선보이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기업유치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복지인프라 구축

김제시, 경제복지국 2024년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김제시 경제복지국(국장 최보선)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부서별 2024년 주요 핵심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경제진흥과 등 6개 부서의 부서장 및 팀장들이 참석해 올해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 및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시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현상, 계층별 양극화 심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다함께 잘 사는 복지인프라 구축'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보고회가 진행됐다.

특히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구축,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수요

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전국 제일의 어르신 섬김도시 조성, △김제가족센터 건립 추진,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부서별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집중 검토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민선8기 중점사업 및 조속히 풀어 나가야 할 현안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소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구면,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참여자 70명 활동교육 실시

김제시 금구면(면장 두일균)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활동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으며 환경정비(57명), 실버발레방(4명), 명품길 가꾸기(5명), 당월저수지(4명) 등 11개월 간 지역 내 마을 안길, 쓰레기 수거, 환경정비 활동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마을 가꾸기 등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발대식은 어르신들에게 근무

시 유의사항, 근무 일정에 대한 설명과 활동 교육 및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사업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두일균 금구면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 활동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기를 소망하고 금구면에서도 사업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